

“타인 의식 않고 혼자서 즐겨요”

공연 관객 절반 ‘혼공족’

2인 이상 관객은 지속 감소

공연 관객의 절반가량은 혼자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예매사이트 인터파크가 2005년부터 작년까지 공연을 홀로 즐기는 1인 관객의 추이를 살핀 결과다.

지난 14년간 1인 관객은 크게 증가했다. 2005년 11%에서 최고 49%까지(2017) 증가했다. 2인 관객은 2005년 69%에서 38%까지(2017년) 감소하는 역전현상을 보였다.

2015년에는 1인 관객 45%, 2인 관객 44%로 1인 관객 예매가 2인 관객 예매 건수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이후로도 1인 관객은 2016년 45%, 2017년 49%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인 관객 예매 건수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8년에도 1인 관객 46%, 2인 관객 4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3인 관객 예매는 2005년 9%에서 2015년 6%까지 내려갔다가 2018년에는 8%로 소폭 상승했다. 4인 이상 관객 예매도 2005년 10%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6%까지 떨어졌다.

2016~2018년 1인 관객 예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장르는 콘서트다. 2016년 55%, 2017년 65%, 2018년 58%로 나타났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 예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디당 1매로 티켓 매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타 장르 중에서는 클래식·오페라와 연극이 타 장르에 비해 1인 관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클래식·오페라에서 1인 관객 예매 비중이 43%로 2인 관객 예매 비중 42%를 앞질렀다.

연극은 1인 관객 예매 비중이 41%로 뮤지컬 39%, 무용·전통예술 38%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인터파크는 “클래식과 연극은 뮤지컬에 비해 티켓 가격이 저렴하고 마니아층이 두꺼워 혼자 공연을 즐기는 관객 또한 많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2018년)으로 윌수목 장르와



연도별 1인 관객 추이.

〈그래프=인터파크 제공〉

상관없이 1인 예매자와 2인 예매자의 비중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혼공이 이제 보편적인 관람 행태로 자리 잡았다”고 부연했다.

혼공족은 20대 여성(31.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0대 여성(18.6%), 10대 여성(11.5%) 순이다. 성비로 봤을 때는 여성이 75%, 남성이 25%다. 남성들 중에서는 10대(1.9%) 보다는 40대(4.7%) 혼공족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년 혼공족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1000석 이상의 대극장 뮤지컬 1위는 ‘웃는 남자’다. 혼공족 비중이 관객의 45%에 달했다. 중소극장 뮤지컬에서는 ‘베니스’가 88%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연극 중에서는 ‘벌거 트릴로지’가 88%의 관객이 혼공족으로 1위에 올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야별로 1~5위 작품들을 보면 대극장 뮤지컬은 30%~40%대, 중소극장 뮤지컬과 연극의 관객 60%~80%가 혼공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인터파크 연간 결산 상위권 랭

킹과 회전문 관객이 많았던 공연 랭킹과도 일치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으로, 흥행이 잘 된 공연일수록, 회전문 관객이 많은 공연일수록 혼공족 비중 또한 높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라이선스 뮤지컬보다 창작 뮤지컬에 대한 혼공족의 지지가 높았다. 작년 ‘웃는 남자’ ‘프랑켄슈타인’, 2017년 ‘그날들’ ‘베티’ ‘행릿:얼라이브’ ‘바타하리’, 2016년 ‘도리안 그레이’ ‘프랑켄슈타인’, 2015년 ‘프랑켄슈타인’, ‘베르테르’ 등의 창작 뮤지컬이 5위 안에 들었다.

인터파크 공연사업부 백세미 부장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수준 높은 창작극의 증가로 공연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관객층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혼공족은 시장을 주도하는 관객 형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무대와 음악에만 몰입해서 즐기 좋은 공연은 다른 어떤 취미 활동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즐기 좋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우석대 천호준 교수, 태권도 대부 ‘김운용’ 삶 재조명 출간

세계 태권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故)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총재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김운용: 태권도를 세우고 세계를 호령하다’(대한미디어)가 우석대학교 교수의 주도로 출간됐다.

21일 우석대에 따르면 천호준 우석대 스포츠지도학과장과 서완식·서성원 태권도 전문 기자가 공저한 이 책은 국제 스포츠계의 큰 별인 김 총재가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지 않았던 역정의 시간을 촘촘하게 담아냈다.

특히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의 숨은 뒷이야기와 동양인 최초로 IOC 위원장 도전과 낙선,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까지의 족적을 사실적 자료에 근거해 기술하

고 있다. 또 태권도와 관련한 산고·곡심·가족·인연·관계·리더십 등 총 6개 테마로 나눠 김운용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그 삶을 통해 성공과 실패, 교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우석대는 스포츠사학문화연구소를 통해 스포츠 현장의 기억을 채집하고 기술을 기록한 DB 구축사업을 펼치고 있다.

천 교수는 “평생을 태권도 세계화와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희생·봉사한 고인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저술에 참여했다”라며 “이 책은 그의 위대한 삶의 자취들과 함께 성공과 실패, 교훈을 모두 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 ‘세계는 들끓는다’

놈 촘스키, 4년 동안의 인터뷰 엮은 대담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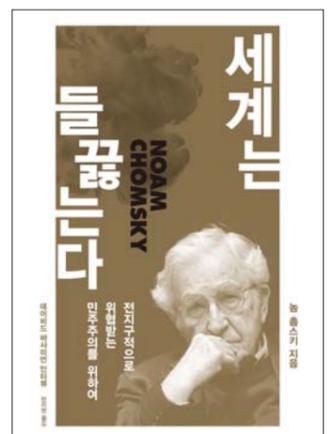
놈 촘스키의 새 책이 나왔다. 촘스키는 씬 없이 체제와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구상하며, 연대와 조직화 만이 희망이라고 역설하는 세계적인 지성이다.

이번 ‘세계는 들끓는다: 전 지구적으로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올해 91세인 그를 30여년 간 인터뷰해 온 독립언론인 데이비드 바사미언(74)과 2013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동안 진행한 12번의 인터뷰를 엮은 대담집이다.

12번의 인터뷰는 세계 도처의 현안들을 전방위적으로 진단한다. 점증하는 환경위기와 핵전쟁의 위험, 중동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동남아까지 달구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을 다룬다. 또한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의 감시와 통제, 민주주의의 후퇴와 복지국가 해체, 인공지능 군비 경쟁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이슈들을 망라한다.

이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촘스키의 언어는 쉽고 정확하며 시아는 크고 넓다. 일관된 세계관을 통한 그의 통찰은 명쾌하다. 모든 사안에 한결같이 비타협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글의 설득력을 높인다. 석학의 식견을 통해 복잡한 국제적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데 유용하다는 평이다.

촘스키는 1928년생 유대계 미국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인지과학자다. 사회비평가 겸 정치운동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창시자로 20세기 언어학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학자로 손꼽힌다. 1955년부터 MIT에서 강의로 시작해 MIT 언어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언어학뿐 아니라 철학, 사상사, 당대의 이슈, 국제문제와 미국의 외교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을 썼다.



데이비드 바사미언은 1945년생 아르메니아계 미국 언론인이자 저술가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보적 매체 ‘대안 라디오’의 설립자이자 연출자다. 이를 통해 독립 언론의 지평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촘스키를 비롯해 하워드 진(1922~2010), 타리크 알리(76), 이론다터 로이(58), 에드워드 사이드(1935~2003) 등 세계적 지성들과 통찰력 있는 대담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국가의 감시와 민주주의, 제2장 중동을 둘러보다, 제3장 권력체제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 제4장 ISIS와 쿠르드족, 그리고 타기, 제5장 살아 있는 기억, 제6장 공포마케팅, 제7장 동맹과 지배, 제8장 갈등의 뿌리, 제9장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제10장 선거와 투표, 제11장 위기와 조직화, 제12장 트럼프의 집권. 천치현 옮김, 316쪽, 1만 6000원, 창비

/뉴시스

한컴, ‘말랑말랑’ 플랫폼 내 콘텐츠 강화... ‘아이나무’와 업무협약 체결

한글과컴퓨터가 자체 캐릭터인 ‘말랑말랑 무브먼트’를 활용한 웹툰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한컴은 22일 ‘아이나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 제작·확산과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웹툰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말랑말랑 무브먼트’는 지우개, 연필심으로 이뤄진 팔기구 캐릭터다. 최근 한컴타자연습,

인형, 사내 기프트 등으로 제작됐다.

‘아이나무’는 국내 최초 어린이용 웹툰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를 개발해왔으며, 다수의 국내 웹툰 작가를 확보하고 있다.

아이나무 관계자는 “그동안 웹툰을 제작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녹여 말랑말랑 무브먼트 캐릭터의 장점을 살린 웹툰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한컴 말랑말랑서비스사업 본부장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 외에도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융합형 콘텐츠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대중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